

## 새로 발굴한 古時調集 『古今名作歌』 研究

구사희\* · 박재연\*\*

### 〈국문초록〉

최근에 발굴된 『古今名作歌』는 황색 고정지에 기록된 필사본 고시조집이다. 『고금명작가』는 조선 영조 17년인 174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시조사적으로도 초기시조집에 해당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시조집에는 78수의 시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9수는 아직 학계에 보고 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이다.

『고금명작가』에 실려 있는 시조 작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조집에서는 다른 시조집에 비하여 한자를 피하고 국문위주의 표기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기의 국어학적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이들 시조 작품들은 다른 시조집의 작품과 비교하여 이본적 가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휘와 어구가 바뀌거나 초장이나 종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 발굴한 시조 9수 중에서 2수는 중국 악부의 일종인 〈大風歌〉와 〈垓下歌〉를 시조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한시가 아닌 樂府를 시조로 개작한 작품이 선정된 것은 시조집 편찬자가 시조와 악부가 지닌 노래와의 상관성을 놓치지 않고 헤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9수 중에서〈9〉와 〈10〉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和答歌이다.

**핵심어** : 고금명작가, 고시조집, 화답가, 영남가, 악부

\* 선문대 국어국문학과(제1 저자)

\*\* 선문대 중국어학과(제2 저자)

## I. 머리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 선인들이 폭넓게 향유했던 새로운 시조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은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러 연구자들의 시조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이 꾸준히 진척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시조 작품만 하더라도 거의 6000여 수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古時調集 『古今名作歌』는 선문대 중한번역 문헌연구소 소장본이다. 근래에 忠南 牙山市 인근에 살고 있는 昌原 黃氏 집안에서 두 권의 書冊과 몇 점의 고문서가 나왔는데, 시조집은 이들 서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시조집 이외에도 정철의 〈關東別曲〉, 판소리계 소설 〈兎公傳(한문본)〉, 고소설 〈王慶龍記(한문본)〉도 함께 나왔다. 이들은 모두 이본적 가치가 있으며 〈兎公傳〉 같은 경우는 필사시기가 이르고 기존 한문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연구사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古今名作歌』는 1740년 이전에 필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것은 시조사적으로도 초기 시조집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모두 78수의 시조가 실려 있는데, 필자의 조사로는 이 중에서 9수가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 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이다. 비록 분량상으로는 많지 않은 작품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조문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古今名作歌』의 서지 내용을 살펴도록 하겠다.

---

1) 『時調文學事典』(정병욱 편저, 신구문화사, 1966)에서 2376수이었던 것이 『韓國時調大事典』(박을수, 아세아문화사, 1992)에서는 5492수로써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것은 이후로도 계속 추가되어 이제는 5626수에 이르고 있다. (박을수, 『韓國時調大事典』 補遺 I · II · III, 시조학논총 제11·13·17집, 한국시조학회, 1995·1997·2001)

그리고 시조 작품에 대한 어학적 특질과 이본적 가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새로 발굴한 시조 작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II. 古時調集 『古今名作歌』의 書誌的 側面

『古今名作歌』는 筆寫本 古時調集이다. 이것은 시조 작품만을 기록했던 단권의 시조집이 아닌 이러저런 잡다한 내용들을 기록해두었던 書冊 속에 필사되어 있었다. 본래 書冊의 白面에는 <量田>·고소설 <王慶龍記(한문본)>·<儀親(附敦寧)>·<量田式>·<直納京倉>·<倉穀>·<軍需>·<山林經濟抄記>·<唐詩> 등이 필사되어 있었다. 백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여러 문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해철하여 살펴보았더니 朱線으로 행간을 하였고 여기에도 여러 내용들이 필사되어 있었다. 『古今名作歌』는 여기에서 발견되었다. 이면에는 穆祖에서 당대 英祖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列聖祖에서부터 <麟趾錄>·<文廟配享> 등과 같은 문헌 기록, 五音合宮이나 歸房禁日 등과 같은 남녀합궁에 관한 내용, 그리고 <官職名>·<古今名作歌>·<祀典>·<儀章>·<吏讀>·<關東別曲(鄭澈)>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麟趾錄>에서 配享功臣 名簿에서도 영조조에 머물고 있으며 게다가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첨기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朱線으로 行間을 했던 裏面이 이 서책의 본래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처음 입수할 당시에 본문으로 되어 있었던 白面 기록은 筆寫者가 나중에 뒤집어서 문건을 추가로 기록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선으로 된 이면은 서책의 구성이나 배열 등이 일정하고 가지런하였는데, 처음에 본문으로 되어 있었던 백면 기록은 잡다한 구성에다가 중간마다 습작한 부분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것과 함께 나왔던 다른 서책에는 <飢困將死人救活法>이나 <辟瘟新方>과 같은 醫藥 秘方, <符籍>, <列聖諱(穆祖 李安社부터 當寧 諱吟, 世子諱愔)> 등과 함께 <兪公傳>이 필사되어 있었다. 따라서 두 서책을 살펴본 결과 '當寧 諱吟, 世子諱愔'에서처럼 列聖祖와 列聖諱에 대한 기록이 英祖大王 통치 기간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兪公傳>말미의 '庚申之秋八月二十三日謄書于藝舍之大房'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책들은 조선 영조 17년인 1740년을 전후로 하여 필사되었고, 『古今名作歌』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시조집 『古今名作歌』의 필사 연대를 1740년으로 잡는다면, 이는 지금까지 가장 앞선 『靑丘永言(珍本)』보다 12년 뒤지고 『海東歌謠』보다 21년이나 빠른 초기 시조집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조집의 명칭인 『古今名作歌』라는 명칭에서처럼 이것은 전대의 시조에서부터 이를 편찬했던 당대까지의 시조에서 뽑은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조집에서 가장 후대의 작품은 17세기 중엽 이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古今名作歌』의 원본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시조집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시조집일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古今名作歌』의 편찬자가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들 서책과 문서들이 창원황씨 집안에서 나왔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안의 대소사를 비롯한 잡다한 것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점, 서책 이외의 다른 문건 5점도 모두 창원황씨 후손의 거래 문서라는 사실에서 필사자는 분명히 영조조에 살았던 창원황씨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책 중에 <裁衣吉日>에 부기한 '黃龜淵 生年月日時 壬申年 二月十三日 辰時'라는 기록이 있는데 서책과 관련된 유일한 實名이다. 하지만 그가 이 책의 필사자인지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黃龜淵은 필사자의 후손으로서 훗날 이 부분에다가 필

요에 의해 이를 附記하였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古今名作歌』의 필사자는 시조집의 편찬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서책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이전의 다른 기록물들을 필사한 것이지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古今名作歌』는 모두 78수로 구성된 시조집이고, 그 중에서 9수는 아직 학계에서 확인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작품들이다. 작품의 차례가 시대 순서에 따라 정확히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1>~<30>까지, <31>~<78>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이 대체적으로 조선초기부터 17세기까지 각각 두 번에 걸쳐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이 시조집은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서부터 18세기 초엽까지 살았던 李彦綱(1648-1711)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古今名作歌』의 古今이란 題名에서처럼 이들 시조가 과거의 작품에서부터 당대의 작품까지를 대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13>의 작가인 이언강이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이 시조집의 편찬은 18세기 초엽 이전에 이뤄진 것을 영조 17년인 1740년경에 다시 필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sup>

### Ⅲ. 時調 作品의 分析的 特質

#### 1. 語學的 特徵을 통한 時期 推定

『古今名作歌』에서는 다른 시조집에 실려 있는 동일 시조에 비해서 한자를 피하고 국문 위주의 표기법을 고수하고 있어 어학적 고찰이 요

2) 두 서책의 紙質은 조선조 숙종조에 사용되었던 黃色 蕁精紙이기도 하다.

구된다.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 『古今名作歌』의 시조 작품들의 표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두 된소리 포기에 ㅅ계 합용병서만 쓰이고 ㅂ계 합용병서는 쓰이지 않았다. 각자병서는 쓰이지 않는다.  
ㅅ : 뵈고리 <70> 씬 <7, 8> 씨인 <47> 씨치괴라 <15> 씨치계 <15>  
ㅂ : 씨나고져 <6> 쯔다 <67> 쯔지 <12>  
ㅃ : 썩리고 <47> 썩고 <2> 썩깃탁 <24>  
ㅆ : 썩 <4> 썩 <15> 썩느니 <70>  
ㅈ : 썩인 <53>
- ② 어말자음군에는 ‘ㄹ’이 쓰였다.  
엿게 <10> 뭉다거늘 <45> 밧다 <25>
- ③ 원순모음화 현상이 보인다.  
노푼 <5> 물 <16> 불성공 <19> 눈물 <20> 무슴 <21>
- ④ 종성의 ‘ㄷ, ㅌ’이 ‘ㅅ’으로 표기되었다.  
뎡고 <29> ㄱ고 <62>
- ⑤ 모음간의 ‘ㄹ-ㄹ’의 표기는 ㄹ-ㄴ만 쓰였다.  
놀녀 <56> 몰나 <57> 달나 <60>
- ⑥ 어두의 ‘ㅇ’은 ‘아’로 변한 예가 보인다.  
자물쇠 <46> 잠겨 <46>
- ⑦ 구개음화 현상이 보인다.  
직희오리오 <1> 엇지희리오 <2> 희가 지니 <4> 꺾쳐 <7> 자른 킨 <9> 쯔지 <12>
- ⑧ ㅎ중성 체언으로 ‘웅, 깊’ <26> 등이 보이고 있으나 ‘되, 들’ <45>에서처럼 ㅎ중성 체언이 소실된 경우도 있다.

위의 표기 형태를 보건대 『古今名作歌』는 18세기의 국어학적 특징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표기적 특징 외에도 『古今名作歌』는 많은 고어와 고문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명사로는 ‘남편’ 또는 ‘지아비’의 뜻으로 ‘샤님’<sup>3)</sup>〈10〉이, 부사로 ‘모두’ ‘통털어’의 뜻을 갖는 ‘대되’<sup>4)</sup>〈14〉, ‘힘껏’의 뜻을 갖는 ‘힘가장’〈15〉, ‘설마’의 뜻을 갖는 ‘현마’〈51〉, 조사로는 비교격 조사 ‘-도곤’〈16, 18〉이 쓰였다.

의문형 종결어미로 ‘-나다’와 ‘-니’, 어간 뒤에 붙어 ‘-지’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르동’, 다른 어미 앞에 붙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강세 보조어미 ‘-돏’〈14〉<sup>5)</sup>이 쓰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古今名作歌』는 18세기에 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異本的 意味가 있는 既存의 時調 作品

『古今名作歌』의 시조들은 다른 시조집의 작품과 비교해서 異本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sup>6)</sup> 그것은 이들 시조들의 어휘와 어구가 달라지거나 초장이나 중장 자체가 아주 달라진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황진이의 시조 ‘靑山裡 碧溪水아...’가, 〈8〉에서는 ‘空山裡

- 3) 각시님 아흔 아홉 샤님의 일빅 수츠 이러 왓노라 〈10〉 이리햐야 아흔 나물 디 내야 그 썩리 죠고맛 일로 샤님드려 아니 니르고 오래 나갓다가 오나날 〈월석-중 22:56〉 父王의 슬보되 내 샤니미 善友太子 | 러시이다 〈월석-중 22:59〉
- 4) 예 혼자 이러튼가 하늘 대되 칩돏던가 〈14〉 嚮을 더러 헤디 아녀도 대되 三萬 닛 饑頭 | 有司 | 供給이 어려오니 (除零不筭該三萬箇饑頭, 有司難於供給.) 〈伍倫 3:4b〉
- 5) 예 혼자 이러튼가 하늘 대되 칩돏던가 〈14〉 이러툇흔 풍뉴랑을 언쇠 어이 그리 보돏던고 괴이토타 (這般一個風流人物, 如何嬌素說是醜陋?) 〈玉嬌 2:17〉 어이 이러 향촌의 더러 낫식이 나돏던고 (何等鄉人, 乃生此尤物.) 〈平山 3:21〉
- 6) 이하 비교대상 시조는 朴乙洙와 沈載完의 자료집을 참고로 하였다.  
 朴乙洙, 앞의 책, 아세아문화사, 1992.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일조각, 1984.

碧溪水아…'로 바뀌고 있다. 徐敬德의 시조인 '萬重雲山에 어너 님 오리 마는'도 <11>에서는 '月侵三更의 어너 님이 으리마는'으로 어휘가 교체되고 있다. 이밖에도 어휘 표현이 달라진 경우도 상당수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대체적으로 이들 작품들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휘나 어구의 교체에서 더 나아가 아예 초장이나 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초장이 교체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종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종장이 교체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項羽 無道호나 范增이 有識던들  
鴻門에 칼춤 업고 義帝를 아니 죽일 거슬  
不成功 疽發背死호들 님 타시라 호리오<sup>7)</sup>

경조 관군 주길 저귀 권호여 말이더면  
홍문연 칼춤 업고 시의제를 아닐 거슬  
불성공 저발비호들 기 님 타슬 호리오<sup>8)</sup>

이는 초장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전자는 『樂學拾零』과 『樂府(서울대본)』에 실려 있는 것이고, 후자는 『古今名作歌』에 실려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의 변화는 없다.

『古今名作歌』에서 종장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경우는 비교적 많았다.<sup>9)</sup> 이런 경우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만 달라진 경우도 있지만 어구의 교체를 통하여 시조 내용이 아주 달라지기도 한다.

7) 『樂學拾零』·735, 『樂府(서울대본)』·275, 〈朴4550〉

8) 『古今名作歌』〈19〉

9) 『古今名作歌』〈39〉·〈46〉·〈47〉·〈51〉·〈57〉·〈58〉·〈78〉



博浪沙中 쓰고 나른 鐵椎 項羽 又든 壯士을 어더  
 힘쓰지 두러메여 쓰치고져 離別 두 字  
 그제야 우리님 드리고 百年同樂 흐리라<sup>10)</sup>

博浪沙中 쓰고 남은 鐵椎 項羽 又든 天下壯士을 맞쳐  
 힘가장 두러메여 쓰치고라 봉당 이 쓰  
 진실노 찌치게 되면 天下太平호오리라<sup>11)</sup>

전자는 『樂學拾零』과 『海東歌謠(一石本)』에 실려 있고, 후자는 『고금명작가』에 실려 있다. 전자에서는 項羽같은 장사를 얻어서 ‘離別’이라는 두 글자를 깨부수어 입과 함께 백년을 누리겠다는 연정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자에서는 ‘離別’ 대신에 ‘봉당(朋黨)’이라는 어휘 교체를 통해 마침내 종장에서는 ‘태평성대’를 희원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 3. 새로 발굴한 時調의 內容的 特質

『古今名作歌』의 78수 중에서 9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굴된 작품이다. 그런데 9수 중에서 맨 앞에 기록된 <1>과 <2>는 중국의 시가 작품을 시조로 개작한 작품이다. 일찍이 鄭炳昱은 전체 고시조 중에서 한시를 완전하게 인용하거나 해석하여 시조로 만든 것이 70여 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것의 절반 정도는 한시에 현토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 40여 수만이 원전이 되는 한시와 대응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그 이후로 한시를 시조화한 작품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10) 『樂學拾零』·816 / 『海東歌謠(一石本)』·479 · <朴1622 / 沈1139>

11) 『古今名作歌』 <15>

12) 鄭炳昱, 「漢詩의 時調化 方法에 대한 考察」, 『국어국문학 49·50호』, 국어국문학회, 1970, 268-290면.

시조화된 한시의 형태 중에서 오언과 칠언의 절구가 가장 편리한 시형이라고 한다.<sup>13)</sup> 하지만 시조가 본래 읊기보다는 부르는 노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읊는 한시보다는 음악에 맞춰 노래로 불렀던 樂府가 시조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큰 바람이 이리날 제 구름조차 놀이 : 니	大風起兮雲飛揚
헉너의 위엄 더코 고향으로 도라왔니	威加海內兮歸故鄉
어디 가 땡스를 어더 四方을 직희오리오 <sup>14)</sup>	安得猛士兮守四方 <sup>15)</sup>

힘은 뫼을 췌고 괴운은 개세터니	力拔山兮氣蓋世
時節 不利하자 추마조차 아니 가니	時不利兮驕不逝 驕不逝兮可奈何
어즈버 우혜 : : 여 너을 엇지하리오 <sup>16)</sup>	虞兮虞兮奈若何 <sup>17)</sup>

전자는 최초의 악부로 알려진 〈大風歌〉를 시조로 바꾼 노래이다. 이 노래는 천하가 통일되고 나서 漢高祖가 군신들과 연회를 베풀면서 천하통일의 위엄과 천자의 위의를 드러낸 것이다. 후자는 楚辭 양식의 〈垓下歌〉이다. 〈垓下歌〉는 楚霸王 項羽가 劉邦과 천하를 놓고 겨루다가 해하성에서 패하여 자결하기 직전에 불렀던 노래이다. 이 두 노래는 모두 음악을 전제로 제작된 넓은 의미의 악부의 일종이다. 중국에서 악부라는 것은 본래 음악에 맞춰 가창되었던 바, 아송의 전통이 단절되고 읊는 辭賦가 발달하자 후대에 이르러 다시 음악으로 入樂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 양식이다. 우리의 시조는 음악에 맞춰 가창되었던 중국의 악부와 견줄 수 있는 셈인데, 위의 두 작품은 한시가 아닌 악부를 시조로 읊었다는 특징이 있다. 『古今名作歌』의 편찬자가 이들 두 노래를 선정한

13) 鄭炳昱, 위의 논문, 268면.

14) 『古今名作歌』〈1〉

15) 『漢書』, 「禮樂志二」

16) 『古今名作歌』〈2〉

17) 『史記』, 「項羽本紀」(卷之一)

것이야말로 시조가 지닌 악부와외 상관성을 놓치지 않고 헤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위의 두 작품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古今名作歌』에는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려진 和答歌 4수가 있고, 이외에도 새로운 화답가 2수가 보인다. 시조집 소재 <11>과 <12>는 서경덕과 황진이, <45>와 <46>은 林悌와 寒雨가 주고받았던 和答歌이다. 작품번호 <9>와 <10>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和答歌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 사이에 오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엮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엮지 마나  
 자른 큰 큰 얼굴의 7좁도 7즐시고  
 경상도 닐흔 두 고을의 수츠 이러 닛고나<sup>18)</sup>

엮게는 스나히요 닛 크기는 혼 길이라  
 영남셔 예을 오니 멀긴들 아니 멀라  
 각시님 아흔 아홉 샤님의 일뵈 수츠 이러 왓노라<sup>19)</sup>

위의 시조 一名 <嶺南歌> 시조는 정확한 내용을 읽어내기에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여성화자가 못생긴 경상도 사나이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상대방인 경상도 남성화자는 못생기고 얼굴이 큰 것이야말로 진짜 사나이라고 능청스럽게 받아넘기고 있다. 여기에서 두 남녀의 해학적인 대화를 통하여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李廷輔(1693~1766)의 戀君歌와 비교가 되는 새로운 시조 작품도 있다.

어제밤 첫 치위의 北海水가 어단 말

18) 『古今名作歌』 <9>

19) 『古今名作歌』 <10>

에 혼자 이러튼가 하늘 대되 칩뚫던가  
아마도 옥누고쳐의 소식 몰나 ㅎ노라<sup>20)</sup>

앗츨 陽地 뗏체 등을 쪼고 안갓신이  
우리님 계신 디도 이 벗치 쪼뚫던가  
암아도 玉樓高處의 消息 몰라 ㅎ노라<sup>21)</sup>

전자는 『古今名作歌』에 실려 있는 것이고, 후자는 李鼎輔(1693~1766)가 지은 것이다. 두 시조를 비교해 보면 종장은 같은데 초장과 중장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전자에서는 차가운 추위를 통하여, 후자는 따뜻한 햇볕을 통하여 임금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바, 같은 연군가라고 하겠다. 하지만 『古今名作歌』에 실린 작품이 시기적으로 후자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를 변개하여 새로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 IV. 맺음말

최근에 발굴된 『古今名作歌』는 황색 고정지에 기록된 필사본 고시조집이다. 이 시조집은 조선 영조 17년인 174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앞선다는 『靑丘永言(珍本)』보다 12년밖에 뒤지지 않는 초기 시조집에 해당한다.

편찬자와 필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창원황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모든 관련 자료가 이 집안에서 나왔고 여기다가 황씨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책 이외의 다

---

20) 『古今名作歌』〈14〉

21) 沈載完, 앞의 책(1832번)

른 문건 5점도 모두 후손들의 거래 문서라는 사실에서 필사자는 분명히 영조조에 살았던 창원황씨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古今名作歌』는 모두 78수로 구성된 시조집인데, 이 중에서 9수는 아직 학계에서 확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작품이다. 이 시조집은 다른 시조집에 비하여 한자를 피하고 국문 위주의 표기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기의 국어학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古今名作歌』의 시조들은 다른 시조집의 작품과 비교해서 이본적 가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휘와 어구가 달라지거나 초장이나 종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어휘나 어구가 달라진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조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 발굴한 시조 9수 중에서 2수는 중국 악부의 일종인 〈大風歌〉와 〈核下歌〉를 시조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古今名作歌』의 편찬자가 시조와 악부가 지닌 노래와의 상관성을 놓치지 않고 헤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9수 중에서 〈9〉와 〈10〉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和答歌이다.

#### 〈참고문헌〉

『古今名作歌』

『史記』

『靑丘永言(珍本)』

『漢書』, 『禮樂志』

『海東歌謠』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 아세아문화사, 1992.

——, 『韓國時調大事典』(補遺 I · II · III), 『시조학논총』 제11 · 13 · 17집, 한국시조학회, 1995 · 1997 · 2001.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일조각, 1984.

李基文,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1982, 192~195면 참조.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신구문화사, 1966.

\_\_\_\_\_, 『漢詩의 時調化 方法에 대한 考察』, 『국어국문학 49·50호』, 국어국문학회, 1970, 268-290면.

朴在淵, 『고어사전 — 낙선재 필사본 번역고소설을 중심으로』, 이회문화사, 2001.

<Abstract>

A Study of Newly Discovered Old SI-JO Anthology,  
『GOGEUMMYEONGJAKGA』

Gu Sa-Hoe · Bak Jae-Yeon

Newly discovered 『Gogummyeongjakga』 is a copy collection of the old poetry SI-JO, which is specified in the book of yellow Gojeongji. 『Gogummyeongjakga』 is guessed to be copied before the 17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1740) and thus it's the early collectio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verse, Shijo.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re are 78poems in the collection and nine out of them hasn't been yet reported to the Korean Academy.

The characteristics of Shijo in the book are followed. First, The collection is different from other books since the book was written in Korean instead of Chinese characters, which shows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literature in the late 17th and the early 18th century. Secondly, there are different versions of a poem in the collection, which is quite unusual in the other collections. There are different

words or phrases used in different versions and even the whole verse is modified in some cases.

Thirdly, two out of newly discovered nine short lyric songs is transformed from <Daepungga> and <Haehaga> that are kind of Chinese Ak-Bu. By the way, the compiler of 『Gogumnyeongjakga』 seemed to understand the co-relation between Ak-Bu and Shijo, and that's why he chose transformed Shijo from Ak-Bu not Chinese poetry. Among nine poems, <9> and <10> are newly discovered responding songs unknown up till now.

*Keywords* : sijo anthology, Gogumnyeongjakga, a responding song, Ak-Bu

<부록>

『古今名作歌』所載 時調

(새로 발굴한 시조는 작품 앞에 ●표시를 했음)

古今名作歌

●<1>

큰 바람이 이리날 제 구름조차 놀이:니  
히니의 위엄 더코 고향으로 도라왔니  
어디 가 땡스를 어더 四方을 직회오리오

●〈2〉

힘은 피을 췌고 괴운은 개세터니  
時節 不利하자 추마조차 아니 가니  
어즈버 우혜 : : 여 너을 엇지하리오

〈3〉

이 몸 죽어 : 一百番 다시 죽어  
白骨 陳土 되어 녀시아 잇고 업고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슬소나  
鄭夢周[1337(충숙 6)~1392(태조 1) : 字 達可, 號 圃隱]

〈4〉

三冬의 뵈웃 넘고 암혈의 눈비 마즈  
구름 긴 벧 뉘도 췌 적은 업건마는  
셔산의 희가 지니 그물 슬허 흐노라  
金應鼎[1527(중종 22)~1620(광해군 12) : 字 士和, 號 懈菴]<sup>22)</sup>

〈5〉

鐵嶺 노푼 고개 쉬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누를 비 삼아 되여다가  
님 계신 구둥궁궐의 불여 준들 엇더하리  
李恒福[1556(명종 11)~1618(광해군 10) : 字 子常, 號 白沙]

〈6〉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아  
故國山川을 췌나고져 흐라만는  
시절이 하 분 : 하니 불 동 말 동 하여라  
金尙憲[1570(선조 3)~1652(효종 3) : 字 叔度, 號 淸陰]

22) 작가가 曹植, 梁應鼎, 李夢奎로 표기된 경우도 있음.



<7>

天朝 길 보미거나 玉河館 어디메오  
大明 日月을 곱쳐 보지 못홀는가  
三百年 스대 석심이 꿈이런가 호노라

孝宗(李滉)[1619(광해군 11)~1659(효종 10) : 字 靜淵, 號 竹梧]

<8>

空山裡 碧溪水아 수이 가물 자랑 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식여 간들 엇더호리

黃眞伊[1511(중종 6)~1541(중종 36) : 字 明月]

●<9>

엷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엷지 마나  
자른 크 큰 얼굴의 ㄱ좁도 ㄱ줄시고  
경상도 닐흔 두 고을의 수춘 이러났고나

●<10>

엷게는 스나히요 늦 크기는 혼 길이라  
영남셔 예을 오니 멀긴들 아니 멀라  
각시님 아흔 아홉샤님의 일뵈 수춘 이러 왔노라

<11>

ㅁ올이 어린 후에 호는 일이 다 어리다  
月侵 三更의 어너 님이 으리마는  
秋風의 지는 님소리의 흥혀 권가 호노라

徐敬德[1489(성종 20)~1546(명종 1) : 字 可久, 號 花潭]

<12>

내 언제 무심호여 님을 언제 소겨관디

月侵三更의 온 뜻지 전혀 업니  
秋風의 지는 님소리 난들 엇지 흐리오  
黃眞伊[1511(중종 6)~1541(중종 36) : 字 明月]

<13>

흐나 들 세 기력이 西南北 各: 느라  
쥬야로 우리 네며 부르느니 무리로다  
언제사 상님 추풍의 흠기 놀가 흐노라  
李彦綱[1648(인조 26)~1716(숙종 42) : 字 季心]

●<14>

어제밤 첫 치위의 北海水가 어단 말  
예 혼자 이러튼가 하늘 대되 칩뎡던가  
아마도 옥누고쳐의 소식 몰나 흐노라

<15>

博浪沙中 쓰고 남은 鐵椎 項羽 갓튼 天下壯士을 맞쳐  
힘가장 두러메여 쓰치괴라 봉당朋黨 이 쓰  
진실노 찌치게 되면 天下太平호오리라

<16>

風波의 놀난 沙工 비를 프라 물을 사니  
구절양장의 물도곤 어려워라  
이 후는 비도 말도 말고 강상전을 미오리라  
張晚[1566(명종 21)~1629(인조 7) : 字 好古, 號 洛西]

●<17>

酒色을 말 거시면 하늘님이 삼겨시랴  
술 나고 님 나고 이내 몸또 이스니  
잔 잡고 님더러 못 노라 네나 알가 흐노라

<18>

楚霸王 壯혼 뜻도 죽기도곤 니별 설위  
玉帳中歌의 눈물은 지러니와  
히 다 진 烏江 風浪의 우단 말은 업더라

<19>

경주 관군 주길 저기 권혀여 말이더면  
홍문연 칼춤 업고 시의제를 아닐 거슬  
불성공 저발비흔들 귀 뉘 타슬 흐리오

<20>

꿈의 향우를 만나 승패를 의논하니  
등동의 눈물 지고 칼 잡고 니른 말이  
지금 의부도 오강을 못내 슬허허더라 /나도 몰나 흐노라

<21>

壯士 :라도 離別의는 壯士 업니  
명황도 눈물 지고 초패왕도 우러거든  
흐믈며 여나쁜 장부야 일너 무슴흐리

<22>

空山 寂寞헌디 슬피 우는 저 두견아  
蜀國 興亡이 어제 오늘 아니열[여]늘  
엇더타 피 나개 우리셔 나문 애을 쫓느니

鄭忠信[1576(선조 9)~1636(인조 14) : 字 可信, 號 晚雲]

<23>

달이 놀나거늘 혁을 잡고 구버보니  
錦水 靑山이 물 아리 빗췌었다  
저 몰아 놀나지 마라 그을 구경흐노라

〈24〉

저 건너 당도는 매가 우리 님 매 갓티  
단장고 씨깃티 방울 소리 더욱 갓다  
어디 가 주식의 잠겨서 매 쓴 줄 모로느니

〈25〉

물 아리 세가락 모리 아모리 밟다 자취 나머  
님이 날을 핀들 내 아더나  
님의 안을 風波의 부친 사공갓치 김피 몰나 흐노라

〈26〉

물 아리 그림지 지니 다리 우히 둥이 간다  
저 둥 게 잇거라 너 가는 길홀 못차  
그 둥이 막대로 白雲을 가르치며 말 아니코 가더라

鄭澈[1536(중종 31)~1593(선조 26) : 字 季涵, 號 松江]

〈27〉

잘 새는 다 느라들고 새 들은 도다온다  
외나무 다리 우히 홀노 가는 저 선사야  
네 절이 언마나 멀관디 遠鐘聲 들이느니

鄭澈[1536(중종 31)~1593(선조 26) : 字 季涵, 號 松江]

〈28〉

북 소리 들이느 절이 머다야 언마 멀이  
靑山之上이오 白雲之下연마는  
지금의 운무 즈옥흐니 아모 던 줄 모나 흐노라

〈29〉

岳陽樓 저 소리 듯고 姑蘇臺 올라가니

寒山寺 찬 바람의 취흔 술 다 지거다

아희아 주가하지오 전의고주허리라

李後白[1520(중종 15)~1578(선조 11) : 字 季眞, 號 青蓮]

<30>

버히거고 베히거고 낙 : 장송 버히거고

저근듯 두엇더면 동냥지 되올거술

이 후의 큰집 문허지면 무어스로 고일소니

鄭澈[1536(중종 31)~1593(선조 26) : 字 季涵, 號 松江]

<31>

興亡이 有數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五百年 王業을 牧積의 붓쳐두고

夕陽의 지나는 깃이 불승비감하여라

元天錫[1330(충숙 17)~?(조선초) : 字 子正, 號 耘谷]

<32>

이 몸 죽은 후의 무어시 되단 말고

근눈산 흥 웃춤의 낙 : 장송이 되엿다가

빅설이 만건곤하거든 獨也靑 : 허리라

成三問[1418(세종 1)~1456(세조 2) : 字 謹甫, 號 梅竹軒]

<33>

첨피괴옥하디 녹독의 : 로다

유비군즈야 낙디 흥나 빌이럼은

우리도 삼강녕 팔도목 낙가 불가 흥노라

朴莢[1471(성종 2)~1540(중종 35) : 字 子實, 號 松堂]

〈34〉

白日은 雲山의 지고 黃河은 東海로 가고

古今 英雄은 北邙으로 든단 말가

두어라 물유성쇠니 혼 혼 줄이 : 스라

崔冲[984(성종 3)~1068(문종 22) : 字 浩然, 號 惺齋]<sup>23)</sup>

〈35〉

일정 百年 산들 백년이 그 언마리

질병 우환 더니 남은 날이 전혀 업다

흐물며 비록세인성이 아니 놀고 엇지하리

〈36〉

노인이 섬플 지고 슈인뼈을 원호오되

식모실 흘 제도 반천세 살라거든

엇지타 교인화식하여 노인 끈케 하느니

〈37〉

治天下 五十年의 不知天下 다스란느나

역조창성이 더괴을 원호엇느나

강구의 문동뇨하니 太平인가 호노라

成守琛[1493(성종 24)~1564(명종 19) : 字 仲玉, 號 聽松]

〈38〉

大旱 七年인 제 은님금 회싱 되여

전조단발하고 상님야의 비러시니

탕덕이 격天하야 大內方數千里하니라

---

23) 〈靑丘永言〉에는 權堤(세종조)의 작품으로 되어 있음.

<39>

이려도 태평성디 저려도 태평성디  
요지일월이오 순지선곤이라  
우리도 성군 되옵고 종낙태평 호오리라

成守琛[1493(성종 24)~1564(명종 19) : 字 仲玉, 號 聽松]

<40>

은하의 물이 지니 오작교 드는 말가  
쇼 익근 선낭 못 거너가단 말가  
직녀의 굵 : 훔 눈물이 세상 빈가 호노라

<41>

꿈의 단니는 길히 보즈최 날작시면  
님의 창 압피 석노라도 다흠눗다  
쌈길이 즈최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李明漢[1595(선조 24)~1645(인조 23) : 字 天章, 號 白洲]

<42>

가마피 겹다 호고 빅노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츠 거물소냐  
것 희고 속 거무니를 우어호노라

李稷[1362(공민왕 11)~1431(세종 13) : 字 虞廷, 號 亨齋]

<43>

츨상의 놀난 기력이 슬픈 소리 우지 마라  
갓득의 니별이오 호물며 깃니로다  
어디 겨제 슬허 울냐 내 스 : 로 슬허호노라

李後白[1520(중종 15)~1578(선조 11) : 字 季眞, 號 靑蓮]

<44>

설월은 만창흔디 브롬아 부지 마라  
예리성 아닌 줄은 판연이 알건마는  
아쉽고 그리온 정의 형혀 권가 호노라

<45>

北靑이 몹다거늘 우장 업시 길을 가니  
되의는 눈이오 들의는 촌비로다  
아마도 촌비 만나 어러 잘가 호노라

林悌[1549(명종 4)~1587(선조 20) : 字 子順 號 白湖]

<46>

괴 무슴 어러 잘고 또 무슴 어러 잘고  
원앙금 좃벼개 어되 두고 어러 잘고  
정철노 자물쇠 지어 잠겨 잘가 호노라

寒雨[? ~ ?, 宣祖朝 妓女]

<47>

지당의 비 뿌리고 양유의 너 끼인 제  
사공은 어되 가고 뵈 빈 비만 띠여느니  
석양의 물츠는 저비네나 알가 호노라

趙憲[1544(중종 39)~1592(선조 25) : 字 汝式 號 重峯]

<48>

草堂 秋夜月の 실슬성도 못 금커든  
무슴 호리라 夜半의 흥안성고  
천니의 님 니별하고 잠 못 드러 호노라



<49>

어저 내 일이야 글일 줄을 모로던다  
이시라 흐더면 가라만는 제 곱흐여  
보내고 그리는 정회는 나도 몰나 흐노라

黃眞伊[1511(중종 6)~1541(중종 36) : 字 明月]

<50>

진회의 비을 매고 쥬가을 츠자가니  
격강상녀는 망국흐도 모로면서  
연농슈 월농[스]흐디 後庭花는 무스이[일]고

<51>

어지 감던 마리 현마 오늘 다 셀소나  
경니 쇠용이 : 어인 늘그니오  
어즈버 쇼년 흥낙이 씬이런 듯흐여라

<52>

李太白의 酒量은 고티 엇더흐여 一日須傾 三百盃를 흐며  
杜牧之 風彩는 고티 엇더흐여 淸과양궤 굴만건고  
아마도 이 둘의 風彩은 못 맛출가 흐노라

<53>

百川 東到海흐니 何時復西阪의  
古往今來의 逆流水 업건마는  
엇더타 간장 썩인 물이 눈으로 나느니

朱義植[? ~ ? (肅宗朝 歌客) : 字 道源, 號 南谷]

<54>

부협고 삼거울손 아마도 초패왕

구동 天下<sup>하</sup>여 어드나 못 어드나  
천니마 절디가인아 버릴 줄 이슬소나

<55>

夕陽의 醉興을 겨워 나귀 등의 지내시니  
十里溪山이 몽니의 지나거다  
어되셔 수성 어적이 잠든 날 싸이느니

趙浚[1346(충숙 2)~1405(태종 5) : 字 明仲, 號 吁齋]

<56>

人生이 둘가 셋가 이 몸이 네 다숫가  
비러온 인성이 꿈의물 가지고셔  
일성의 사를 일만 하다가 언제 놀녀 흐느니

<57>

누고 뉘 일은 말이 청강소 깊다턴고  
비오리 가슴이 반도 아니 줌겨셔라  
우리도 시 님 거러두고 곱피 몰나 흐노라

<58>

이리 <sup>하</sup>여 날 소기고 저리 <sup>하</sup>여 날 소기니  
날 소긴 님을 니즘죽 <sup>하</sup>전마는  
아마도 이 님 니별의논 애 굶는 듯<sup>하</sup>여라

<59>

청춘소년들아 빅발노인 웃지 마라  
공도세월의 넌들 아니 늘글소나  
어즈버 쇼년헝낙이 어지론 듯<sup>하</sup>여라

<60>

有馬有琴有酒홀 제 소비친척강위친을  
일도마스황금진호니 친척도 환위노상인이로다  
엇더타 세상 인정이 나날 달나 가느니  
李相殷(? ~ ?)

<61>

조호다가 막대돌 일코 춤추다가 낙시대돌 일테  
늘은의 망녕을 빅구야 웃지 마마[라]  
십니의 도화 발호니 춘흥 계워 호노라

●<62>

벽히 구름 갓고 추천의 돌이 썰나  
만이천봉이 봉마다 옥이로다  
어즈버 쇼 : 낙엽의 잠 못드리 호노라

<63>

言忠信 行篤敬호고 酒色을 삼가호면  
내 몸의 병이 업고 남을 아니 무이느니  
行호고 여력이 잇거든 흑문으로 호오리라  
金光煜[1580(선조 13)~1656(효종 7) : 字 晦而, 號 竹所]

<64>

적무인 엄듭문호니 만정화낙월명시라  
독의사창호여 당탄식호을 초의  
원춘의 일 계명호니 애 굶는 듯호여라  
李明漢[1595(선조 28)~1645(인조 23) : 字 天章, 號 白洲]

●〈65〉

곳도 아니로쇠 님도 아니로쇠  
금슈청산의 절난 풀이로다  
아마도 원앙금니의 쥐여 본 듯 하여라

〈66〉

곳춘 식을 밋고 오는 나뉜 금치 마라  
춘광 덧업슨 줄 넌들 아니 짐작하라  
녹엽이 성음하면 병든 나뉜 아니오리

李恒福[1556(명종 11)~1618(광해군 10) : 字 子常, 號 白沙]

〈67〉

새별 지고 종달이 쓴다 호매 메고 문을 나니  
긴 수풀 아춤이슬 뵈잠방이 다 젖는다  
아히야 시절이 조홀선정 옷 짓기 관겨하라

李明漢[1595(선조 28)~1645(인조 23) : 字 天章, 號 白洲]

●〈68〉

개야 좃지 마라 밤스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넘쉴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줌 : 허더라

〈69〉

암뭇서 든 고기들아 네와 든다 뉘 널을 모라다가 너커늘 든다  
북희 청소을 어더 두고 예 와 든다  
들고도 나지 못하논 정이 네오 내오 흥가지로다

宮女 (? ~ ?)

〈70〉

버들은 실이 되고 찌고리 북이 되어

九十三春의 썬느니 나의 근심  
누구셔 녹음방초을 송화시라 니르더니

<71>

닷는 몰도 왕흐면 셔고 섯는 쇼도 타흐면 가니  
심이산 악호도 경세흐면 도셔거든  
각시님 뉘 집 녀즈완디 경세 불청흐느니

<72>

못노라 저 선사야 관동팔경 엇더터니  
명사십니의 히당화 불건느디  
원표[포]의 낙 : 빅구는 비소우를 흐더라

<73>

우리긋치 소리 난 님을 번기긋치 잠간 만나  
비긋치 오락 가락 구름긋치 훗터지니  
가슴의 브름 긋튼 한숨이 안개긋치 내려나더라

<74>

손으로 대봉을 잡아 번개불의 구어 먹고  
남명슈 다 마시고 복희슈 건너뛰니  
태산이 발길의 초이여 왜각데겨 흐더라

<75>

츄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매라  
낙시 드리느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훈 돌 밤만 싯고 뵈 빈 비 저어 가노매라

月山大君(李婷) [1454(단종 2)~1488(성종 19) : 字 子美, 號 風  
月亭]

<76>

돌이 두렷하여 벽공의 걸러시니  
만고풍상의 찌러점즉 허다마는  
지금의 취각을 위하여 당조금준허괴라

李德馨[1561(명종 16)~1613(광해군 5) : 字 明甫, 號 漢陰]

<77>

世事琴三尺오 生涯酒一杯라  
西座江上月이 두렷지 불가는다  
東閣의雪中梅 드리고 翫月長醉허리라

<78>

黃河水 물다터니 성인이 나시도다  
초야군현이 다 주어 나단말가  
우리도 성군 띄웁고 동낙패평 허오리라

金光煜[1580(선조 13)~1656(효종 7) : 字 晦而, 號 竹所]